

세상에는 싫은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7년 연속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7차 평가는 2020년 5월에서 2021년 4월까지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외래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평가지표는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 시행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 ▲적절한 흡입치료제 처방 등을 평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7차 평가에서 종합점수 86.8점으로 동일종별 평균 78.4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표준 치료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변함없이 우수한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동국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창회 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동국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창회에서 발전기금으로 간호업무환경개선 지정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9일 본원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보경 동창회장,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박완임 간호부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보경 동창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병원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동창회에서 작은 마음을 모아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기부금을 주셔서 큰 힘이 되며 이 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애쓰고 있는 간호현장의 업무 환경개선등 유용한 곳에 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간호대학은 2021년 5월 간호대학으로 승격하여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상월결사 대흥사 평화순례 의료지원

상월결사 순례단은 3월 23일 해남 대흥사 인근 인조잔디구장에서 입재식을 갖고 ‘상월결사 평화순례’를 시작했다.

이번 평화순례는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이어 세 번째 만행으로 주제는 ‘평화’다. 평화순례는 묵언, 휴대전화 사용금지, 방역수칙 준수 등 청규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다.

평화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학교법인 동국학교 건학위원장 돈관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을 비롯하여, 재가불자, 특히 우크라이나 교민 등이 함께 평화를 발원하며 걸어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입재부터 회향까지 순례단의 안전과 건강을 살폈다.



채석래 의료원장(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2022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온라인 춘계심포지엄 개최

채석래 의료원장(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은 3월 24일 ~ 25일 온라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진단검사의학회 회원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은 ‘Laboratory Medicine at the Leading Edge of Healthcare’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어 진단검사의학분야 최신 동향의 지식을 논의하며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채석래 조직위원장은 “이번 춘계심포지엄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아쉽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비대면 참여로 성황리에 열려서 회원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된 진단검사의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23일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환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친절한 태도로 환자들에게 추천을 받은 교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상으로 수상자는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산부인과 임가원 교수, 정형외과 김태현 전공의, 92병동 전수현 간호사, 외과계중환자실 석상원 간호사가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순금 배지를 전달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빛나는 교직원분들에게 금배지를 시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우리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의료진이 되시길 바란다”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은 칭찬건수, 입원/외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는 환자경험평가 결과와 1인당 환자수를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시상은 분기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